

인류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에너지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에너지가 있기에 삼복더위에도 긴소매 셔츠를 입을 수 있으며, 엄동추위에도 런닝 셔츠 차림으로 연중 생산되는 절없는 과일을 즐길 수 있다. 지난 200여 년간의 산업화와 근대화하는 현대의 물질적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쾌락을 선물하였지만, 미래세대와 지구생태계에 기후변화에 따른 생존권 위협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의 확대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적 근대화 시스템은 사회적, 생태적 소외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며, 중국에는 삶을 죽음으로 내몰아왔다.



불자 세상보기

최승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사찰의 에너지 소비의 대안

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엑손 발데스호(알래스카), 허베이 스피리트호(태안), BP의 해저 유전 사고(멕시코코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 파괴와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제한된 에너지원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국제유가의 변화는 승용차의 휘발유 가격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식탁에 올라오는 야채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에너지 문제는 공급의 확대보다 수요를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아껴라, 아끼는 것이 낫다"라는 구호는 대표적인 에너지 폭식 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미국이 선택한 대안

이다.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은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를 줄일 것을 제시하면서, 정부청사를 비롯한 주택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500만 개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현재의 위기가 에너지, 특히 석유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지나친 소비에 있음을 인식하고 절약과 대체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체계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경우, 절약과 대체보다는 여전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의 문제는 그동안의 소

비행태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한 환경단체와 사찰의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에너지 소비 규모가 1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사찰들이 산중에 입지함으로 인해 값싼 에너지원인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사찰 겨울나기에 1억

최근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유가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의 원가연동제 도입을 발표하였다. 즉 석유와 그에 의존하는 전기에너지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석유와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사찰의 에너지 공급체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최근 들어 건강한 생활과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산중의 사찰을 찾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반인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사찰의 규모가 커지고 도시적 소비패턴이 빠져들고 있다. 사찰 주변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이 분포하고 있다. 사찰은 우리사회에서 어느 곳보다 가장 생태적인 공간에 입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에너지 소비는 생태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사찰 에너지소비에서부터 성찰을 통한 대안을 스스로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

사설

'새 불교' 각성하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가르침은 뜻생명의 화해로 울과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함이다. 지금 그 염원이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 나라 안을 살펴보면, 온통 혼돈이다. 거칠고 폭력적이다.

며칠 전에는 젊은이들이 동반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중 가장 높다. 우리가 얼마나 팍팍하고 무자비의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출산율은 1.15명(2009년)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수치는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으로, 2세를 낳지 않는 불임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스런 삶을 되돌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식이 불임사회가 된 근본원인이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제를 실시하는 것으로는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살 만한 세상이 되지 않고서는 난망하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후 대북 응징론과 안보 부실 책임론이 첨예하게 맞붙어가는 형국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 밀어붙이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토해양부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단체 등에 토론회를 제안했으나, 공사를 일시 중지하겠다는 조건을 내놓지 않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그동안 반대운동 측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음과 동시에 공사를 일시 중지한 후 토론회를 하자고 해야 한다. 그래야 반대운동 측에 진정성이 전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벌기나 여론 호도용이나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한 사회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정치인은 한지 앞의 세상만 쳐다본다. 그것조차 의논밖이다. 나와 우리 집단에 이득이 되느냐는 것이 판단의 근거로 삼을 뿐이다. 긴 안목과 양보와 배려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미덕이 되지 못한다. 편 가르기와 배제의 원리가 기술을 부리고 있다. 중도에 기반한 지성은 실종되었다. 정치권력의 자정에 빨려들어 허우적거리거나 세 세상이란 듯 오스대고 있는 꼴이다.

이러한 때에 불교는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많은 이들이 불교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팍팍한 세상을 적셔줄 부드러운 불교에 기대하고 있다. 불교가 단비를 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불교는 조선조의 기나긴 역사의 시기를 견뎌왔다. 이후 일제치하에서 불교다움의 면목을 되찾지 못했다. 해방 후 부처님법대로 살자는 운동이 일어 그나마 불조 앞에 송구스러움을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5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도록 30여 년 이어진 비구-대처의 갈등으로 발전의 토대를 닦지 못했다. 갈등의 시기로부터 벗어나지 한 세대를 지나왔음에도 여전히 그 후유증에 호되게 시달리고 있다. 가장 큰 후유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법보다는 권력의 논리가 지배함으로써 비법이 구조화되었다는 것이다.

새 불교를 위한 성찰과 새로운 기운을 배양하기 위한 각성이 있지 않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은 허탈하다. 법전 스님의 봉축법어를 다시 되새긴다. "눈앞에 있는 모든 생명이 법신의 구현체요, 여러분이 불조대기(佛祖大機)를 구축한 미륵의 현실입니다." 새 불교를 열라는 함양(嚮導)으로 새겨야 한다.

미래세대 위협하는 풍요

대표적 에너지원으로서 석유는 앞으로 40년, 천연가스와 우라늄은 60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석유소비 규모는 1500만 배럴(일(1955년)에서 8200만 배럴(일(2005년)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왔다. 현대 에너지 시스템은 끊임없이 에너지 수요를 재촉해왔다. 현대 에너지 체계의 지지자들은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소비가 무제한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와 환경 위험이 완화되고 사회적 위험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과 전략이 생태적으로 무해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을 진행해오면서 늘리는 일 중의 하나. 이들 중에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최근 충격적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언론 보도 때문인지 성폭력 가해자는 극악무도한 성격파탄자, 범죄 성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성범죄는 성격이나 정신적 문제라기보다는 성(sexuality)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인식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전문성도 갖춘, 성실한 사람이지만 성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성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왜곡된 남성성 · 여성성

예를 들면 거칠게 성행동을 하는 것이 사권의 깊이를 더해 간다거나 때로는 공격적 성격 행동이 남성답다는 신념, 반면 내성과 애교, 성에 대한 수동적 태도를 여성성의 상징으로 인식하여 의외로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는 일, 불평등한 관계가 강요되어지는 데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받아들이는 일들이다. 왜곡된 통념은 때로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때로



사부대중 갈림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불교와 성교육

는 놀이 속에서, 장난처럼, 그리고 화해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일상에서 성폭력을 일으킨다.

성교육은 말 한마디도, 손짓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일이다. 성교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태도와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차별적 성역할을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성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는지, 왜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성적 상황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등을 이해하게 하는 일이다. 성교육은 기존의 가부장적, 폭력적, 상업적인 성문화로부터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생명 · 평화적인

성문화를 지향하게 한다.

무엇보다 성교육은 '나'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즉 내 몸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알고 행사하게 한다. '성은 인권이며 존중과 배려'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과 관련된 태도, 인식, 행동, 규범 등은 어린 시절 가정과 학교 그리고 그 사회와 문화를 통해 배운 것들이나 성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는지, 왜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성적 상황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등을 이해하게 하는 일이다. 성교육은 기존의 가부장적, 폭력적, 상업적인 성문화로부터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생명 · 평화적인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진다는 점에서 상대방과 자신의 의

사를 존중하면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오랜 연습과 배움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 점에서 성교육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조기교육이며 생애주기 동안 평생 받아야 하는 평생교육이다.

내가 '나'의 '주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를 가지 있게 여기는 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모두가 차별 없이 성생활 할 수 있다는 평등과 본래 부처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한다. 모든 생명 있는 것에 대한 존엄성과 서로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역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성행동은 후천적 학습

한편 불교적 수행에서 성은 금기의 대상, 수행의 장애로 여겨지고 있는데, 성이 불편하고 삶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리쳐야 할 적이라고 생각할 때이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은 성적 욕망, 성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은 생애에 대한 것이며, 권리에 대한 것이며, 정체성에 대한 것이며, 성적학, 의사소통, 자존감, 친밀감의 표현에 대한 것이다.

성에 대한 역할과 차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성주체성을 갖는 데 성교육만이 대안이 아니지만 성교육은 가장 희망적인 대안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6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출판물담당 실시간 뉴스 보도자료 불교포탈 부디피어 쇼핑몰 연동담당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	---	---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	--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신제품

MSM Glucosid & Omega3 Cream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크림이 항상 통증을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골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걸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뽀얗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케어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름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룰 수가 통증이 싹 사라졌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팔꿈치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팔꿈치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버렸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ml x 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약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화 뽀얗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곽을 내며 하얀이로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금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 7기 보건식품 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 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 과 목	교육 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양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수시교육 / 매월 상시 모집 중

중앙 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강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 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광주교육원 062-672-5432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